

'97대동제' 개막

서울...회기주민과 함께 '사자머리 대기'

다채로운 단대별 행사 마련...수원

우리학교 대동제가 오는 20일과 19일 서울·수원 양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먼저 서울캠퍼스의 '97 고향 겨레사랑 통일한마당'은 오는 23일 까지 4일간 펼쳐진다. 첫째날 1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겨레사랑 통일한마당 자전거 타기'는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개막 전 행사이다.

이번 대동제의 개막식이 될 '출 한마당'은 대동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치뤄질 행사로 과별로 결성한 춤패를 중심으로 전체학과가 모여 화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동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대동놀이 시간에는 우리학교 전통이었던 사자머리대기를 부활시켜 회기동 주민과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다.

이 외에도 대동제 기간 중 학내 곳곳에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선보일 예정인데 미교회에서는 거리 미술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의대 앞 동의마당과 크라운 앞 다이아몬드 동산 앞에는 상설무대를 마련해 각 과나 단대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겨레사랑 대동제'는 오늘 오후 5시 개막제

를 시작으로 22일까지 학교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개막제에서는 '겨레사랑 문화제'를 통해 겨레사랑의 중요성을 알리며 구성원들에게 이를 확산시키는 자리를 갖고 둘째 날에는 학부학생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과, 학부, 동아리의 날을 마련한다.

21일 단대의 날을 통해서도 단대 학자투쟁의 정리와 단대 운동본부 회원 단결의 장을 열어 22일 폐막식에는 단대, 과, 학부, 동아리들의 장기자랑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제를 만들 예정이다.

이날 폐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경희취아카데미는 대학의 상징인 지성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밖에 대동제 기간 중에 치뤄지는 주요행사에는 북한동포돕기 위한 일일 장터거리, 학내 음악 동아리들이 연대회를 갖는 락 페스티벌, 북한바로알기 선전거리 등이 있다.

국제법무대학원 학술강연회

경제통상학부 초청강연

국제법무대학원(원장: 윤명선 교수)과 법학연구소(소장: 김병목 교수)가 주최하는 학술강연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국제법무대학원 30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미국 뉴욕 법과대학 Stanley Siegel교수가 초청 강연하며 최승환(국제법무대학원)교수가 통역을 담당한다.

한편 '21세기 시장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경제통상학부 주최 초청강연이 오는 20일 오후 5시 정경대학 401호에서 개최된다.

소년소녀가장돕기 공연

개교 48주년 기념 '홍농지역 복음화 및 동대문지역 소년소녀가장돕기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크라운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경희 기독교인 교수회와 홍농지역 연합신우회가 주최하고 경희기독교신우회, 경희기독교학생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김수곤 서울캠퍼스 부총장, 박훈동대문구청장이 자리한 가운데 치뤄진다.

이번 공연에는 이훈(성악)교수를 비롯한 음악대학 교수진 외에 우리학교 음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Alleluia찬양선교단'을 포함한 4개 합창단이 출연한다.



▲외국인 장기자랑 순서에서 장구춤을 선보인 일본학생

외국인 학생 화합의 자리

세종대왕탄신 6백주년 기념 외국인 한마당

세종대왕탄신 6백주년기념 경희 외국인한마당이 지난 16일 학내 곳곳에서 열렸다.

오전 9시 최상진(국문)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열린 이번 행사

는 학내 외국인들을 비롯 일반 학생

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뉴스레터 7호 발간

입학관리처가 제작한 '뉴스레터 7호'가 오는 22일 발간된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학원장 격려사, 총장 인사말, 수석합격자 인터뷰, 입시정보, 경희 10대 뉴스, 명문고 소개 등이 실린다.

교시 탐

한걸음 물러서는 지혜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커다란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틈이나 맞물려 돌아가듯 다른 종끼리 별다른 마찰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연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11일 새벽 검토부 동아리방에서 잠자던 이순재(법학 95)군이 구타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연습실을 함께 써오던 응원단측과 검토부측의 연습실 사용 시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검토부측은 구타에 가담한 류근규(철학 93)군을 고소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응원단측에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폭행이 아닌 단순가담이었고 사과와 뜻이 없는게 아니라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과문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작성한 것도 고소한다기에 쓴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이며 현재 사실과 다른 대조부의 내용을 다시 조율해 일부 과장되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검토부측에서는 "사과문 작성 다음날 또다시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응원단측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같아 그들의 약속에 신뢰도가 떨어져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일들을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표출했다는 점에 대해 집단발아야 마땅하며 또한 피해자의 표현수단을 '고소'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맞바친 태도도 어찌구무 없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뒤로 한채 서로의 감정만을 내세운다면 앞으로 검토부와 응원단은 적대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냉철하게 판단할 때만이 공동생활에서의 자연연속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최현일 기자)

날짜	행 사	시간 및 장소
20일	겨레사랑 통일한마당 자전거타기 개막식-출한마당	오후 1시, 대운동장 오후 5시, 노천극장
21일	마당극 '우금제'의 두자리 칠척놀이 회기동 거리문화제 젊은 영화제 1	오후 2시, 문리대 둘다방 앞 오후 4시, 회기삼거리 오후 8시, 노천극장
22일	3:3 길거리 농구대회 응원콘서트	오후 1시, 대운동장 오후 6시, 노천극장
23일	젊은영화제2-독립영화제 내 마음의 휴전선을 거두고... 문화공연 폐막식-대동놀이	오후 1시·3시, 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6시, 노천극장 오후 9시, 교문앞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수원시 장기도로 계획 우리학교 제외 외부순환도로 구간 연장 요청

우리학교는 수원시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수원시 장기도로망 건설계획' 중 외부 순환도로가 우리학교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 지난 13일 수원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의가 제기된 외부순환도로 계획구간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북수원IC부터 고색동~화성태안읍~영통지구~신대저수지~상광교동~북수원IC까지로 학교를 경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는 △영통역 영덕지구 입주 후 거주민 20만명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될 가능성 제시 △열악해지는 수원시 교통사정으로 인한 재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의 연장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제에 따른 지역교육 시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수원시에 제출,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을 교차로 없이 전·출입만

가능하도록 건설하고 외부순환도로는 교차로 지점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강좌 개설 실습위주 교육방식 적용

사회과학연구원 정보센터(소장: 서영호 교수)는 오는 26일 경희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한다.

조교의 활용으로 개인교습의 효과 기대되는 이번 강좌는 실습 위주의 실천교육을 목표로 하며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당 기초인터넷, 중급인터넷, 홈페이지 강좌 3회로 나뉘어 교육이 실시된다.

강좌장소는 정경대학 전산 C실이며 수강인원은 1회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강좌에 등록할 경우 인터넷 광고회사 Gold Bank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아이네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1회 수강시 1만원이며 수강금은 우리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서영호 소장은 "대학내의 정보 부실을 타파하고자 이번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컴퓨터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R.S. 응시율 50% 못미쳐 수업과, 시험일 선정 잘못

서울캠퍼스 C.R.S.인증시험의 응시율이 50%에도 못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원서접수를 마친 결과 영어분야에 94명, 전산분야에 83명이 응시 희망의사를 밝혔으나 10일 시험 당일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각각 38명, 42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소정정 30일까지

교무처는 성적표 및 등록고지서의 정확한 발송을 위해 양캠퍼스 재학생 주소정정기간을 발표했다.

정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학과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붉은펜으로 정정주소 및 전화번호를 새로 기재하면 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상홍 수업과장은 "시험일이 토요일인데다가 시기상으로 중간고사 직후인 관계로 시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응시를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 난이도가 비교적 낮았던 이번 시험의 합격여부는 이달말 공문을 통해 각 학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응시 저조현상을 대비해 다음 학기부터는 시험일을 평일로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지안: GO KHU 31
하이텔: GO KHU 10
유니텔: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경희발전기금 참여 안내

세계의 명문대학 뒤에는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 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은 경희대학교가 역동의 시대에 대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다가오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의 양성과 21세기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할 새로운 경희인' 육성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대 상: 경희가족,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0-209
외환은행 131-13-10336-6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5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

